광주 5개 자치구 불균형 심각하다

도시균형발전위 첫 회의 … 실태 분석

공무원 1명당 북구 519명·동구 178명 꼴

지역 내 총생산·주택 보급률도 '천차만별'

지난해 말 인구가 47만1939명인 북구의 공무원 수는 909명, 10만3589명인 동구의 공무원 수는 583명이다. 공무원 1명이 북구에서는 519명의 주민에게, 동구에서는 178명에게 각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광주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대비 광산구는 인구가 2배 이상, 서구는 30% 이상 증가한 반면 동구는 3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07%에 달하고 있는 반면 15세 미만 인구는 자치구 중 가장 낮은 11.6%에 불과, 동구의 인구분포는 고령화단계(고령인구 7%)를 지나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에서도 불균형은 심각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전체 면적 501.24㎢ 중 절반에 가까운 223㎢(44.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동구와 남구는 각각 48.8㎢(9.8%), 61㎢(12.3%)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인구밀도는 서구가 6534명/1㎢인 반면 광산구와 동구는 1653명/1㎢, 2120명/1㎢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돼 광산구가 된 뒤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수준에서도 균형을 상실했다. 광주시 평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지난 2007년 1472만7000원이지만 남구는 709만원으로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고 광산구는 2076만2000원으로 5개 자치구 중 가장 잘 사는 자치구로 분석됐다. 주택보급률 역시 동구는 79%로 광주시 평균 103.7%에 미치지 못했으나 남구는 115.7%, 북구 111%로 평균을 웃돌았다.

취약계층은 동구에 몰려있었다. 동구의 전체 인구 중 7.1%인 7348명이 기초수급자, 5.8%인 5986명이 장애인이었다.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3074명, 장애인은 2만168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대비비율은 각각 4.9%, 4.6%로 나타났다. 동구 주민들은 다른 자치구 주민들에 비해 공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남구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구나 서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17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는 시의원과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도시·환경·복지·문화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39명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도시균형발전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사실상 처음 이뤄진 자치구 간 비교"라며 "같은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감안한 균형발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등 39명으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간균형발전분과, 도심공동화대책분과, 구간 경계조정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서 전국 편의점 즉석김밥 만든다

70억 들여 제조공장 설립 … 道, 415억 규모 투자 협약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온에프에스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15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가온에프에스는 장성에 70억원을 들여 즉석식품 제조공장을 설립, 전국 규모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GS25의 호남과 충청권 1000곳의 점포에 김밥·주먹밥·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등을 자체 브랜드로 납품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때문에 산지나 물류가 편리한 곳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도내 물류 중심지인 장성이 투자 적지로 선택됐다. 전남의 친환경 농업비율이 높아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점도 한 요인이다.

또 ㈜티엔비는 장성에 42억원을 투자해 세탁기·청소기 등 전자제품용과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해 대우일렉 등에 납품하게 된다. 장성동화전자농공단지의 경우 삼성전자와 대우일렉 협력사가 가동중인 만큼 전자부품 집적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외 ㈜베라엔지니어링은 영암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역 표준형 임대공장에 LED산업의 기초소재인 사파이어 잉곳 실린더 및 웨이퍼 가공공장을, ㈜오션바이오텍은 영암에 기능성 특수 양어사료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보화마을 쇼핑몰 설 선물 20% 할인

"설 선물은 정보화마을 쇼핑몰에서 20% 싸게 사세요"

전남도는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정보화마을 쇼핑몰(www.invil.com)에서 지역 특산품 온라인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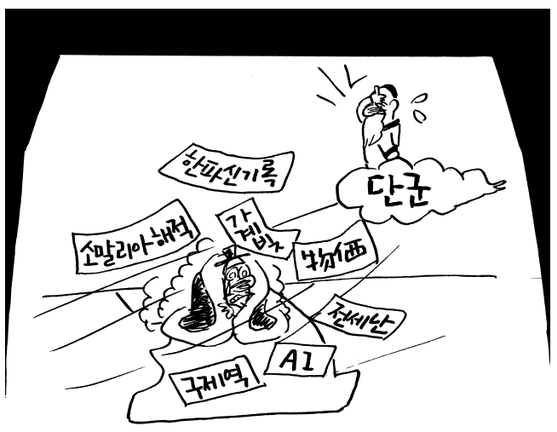
전남에서는 지역 정보화마을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과 지역 특산품, 가공식품 등 600여개의 상품을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전남 특산품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23일까지 온라인 구매고객 10명을 추첨해 쌀과 사과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빛日만평

- 김종두



연초부터 안타까운 소식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배우자"

외국인 등 견학자 2만명 넘어서

전국 유일 노인문화복합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견학자가 외국인 4500여명을 포함해 2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에게 필요한 문화·복지·체육·여가 등과 관련된 수준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벤치 마킹'을 위해 타운을 찾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17일 "지난 10일자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견학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개원 이후 모두 560여개 기관, 2만96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4561명이 외국인이었다.

이희호 김대중 전 대통령 영부인에서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정부 공무원, 노르웨이·일본 노인복지 관련 교수, 일반노인 등 견학자들의 층도 다양했다. 방문자들의 소감을 적은 재단 방명록은 이미 14권째를 넘겼으며, 방문 신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외국 방문객은 주로 가까운 중국, 일본 출신이 주를 이뤘으나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미·유럽과 아프리카 가나 등에서도 타운을 찾았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조직 내에 견학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홍보팀을 만들었으며 체계적인 견학 안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언어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며 "타운이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올 발주 공사금액 5645억

82%는 상반기중 집행

광주시는 17일,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5개 자치구와 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발주될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파악한 결과, 403건에 56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공사금액 대비 82% 규모인 372건 4613억원의 공사를 올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공사 발주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지역 건설업체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입찰 시 편의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공사규모·공사금액·발주 시기 및 담당자·연락처 등이 공개된다.

올해 발주될 주요사업으로는 광주 제1, 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982억원)와 광주야구장 건립공사(797억원)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발주대상 공사에는 지역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전국 입찰대상공사도 지역의무공동도급 49%이상을 권장하는 등 최대한 많은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임 대법관 후보 이상훈씨 등 4명 추천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수학(57) 대구지방법원장, 이재홍(55)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55)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3년 판사로 임명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 이론과 실무에 능하며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후배 법관에 대한 독려와 재판업무지원에 앞장서는 등 원만한 성품으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수일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몽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since 1985. CH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